

## 學會誌 編輯上の 몇가지 問題點

金 哲 基

어느 學會誌를 莫論하고 學會誌는 本來 學術의 研究와 普及 그리고 獎勵를 目的으로 會員들에 依하여 研究되어온 學術論文 및 各會員의 專門分野를 위하여 有益한 情報들이 담기게 됨은 두말 할 나위 가 없다. 따라서 學會誌는 會員들의 專門分野에 對한 知的 보급자리요, 會員들에게 주어질 專門의 情報의 補給源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情報는 國內의 것은 勿論 國境을 超越한 다른 모든 나라의 것을 包括하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汎世界的이다.

또한 學會誌에 실릴 모든 內容은 바로 우리 會員들의 學術研究, 技術開發, 및 其他 모든 學會活動의 거울이므로 可能的 限 會誌의 年 發刊回數가 많고 그 內容의 質이 豊富하고 優秀할수록 그 學會와 學會誌가 높이 評價받을 것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도리켜 보면 우리 農工學會誌의 內容이 그간 滿足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처음 몇해동안에는 年 2回 出刊이 고작이었던 것이 年 4回 出刊으로 向上發展하였고, 質의 面에서도 처음에는 一般技術者들이 設計資料로 바로 利用할만한 先進 外國技術資料가 主宗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와는 反對로 學術論文에 該當하는 것이 그 內容의 大部分을 이루어 學會誌라기 보다는 學會論文集과 같은 印象을 갖게되어 academic 한 點에서는 무게가 커졌다고 볼수 있으나 哀惜하게도 會員全體가 學會誌 出刊을 기다릴 程度로 愛讀利用 한다는 實情이 양이 라는 것이 現在の 課題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先進外國과 같이 學會誌와 論文集을 分離시켜 發刊할 수 있는 與件도 財政面이나 原稿蒐集面에서 아직 우리에게 許容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如何든 會員 모두가 다같이 愛讀利用할 수 있는 學會誌를 만드는 일이 急先務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우리 學會誌를 어떤 形態로 方向과 範圍로 設定하여 最善을 다해서 가꾸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農工學會誌의 年輪面을 보더라도 第 19卷 第2號가 이제 出刊되고 青年期에 접어드는 時點에 와있는 만큼, 世界속의 韓農工學會란 方向으로 우리의 視野를 넓히면서, 學界會員은 學界會員대로 훌륭한 論文을 많이 내놓는데 努力하고, 技術界의 會員은 그 나름대로 훌륭한 技術報告 또는 技術情報를 많이 내놓는데 努力하는 同時에 過去와 같이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學會誌가 되지않는 方向으로 우리會員 모두가 努力하여 愛讀利用人口의 實質的 擴大를 企圖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이런點에서 우리 農工學會誌가 當面한 問題點으로는 ① 會誌內容의 編制上の 問題 ② 會誌內容上の 質的向上問題 ③ 出刊回數의 增大와 豫算增額問題 ④ 編輯上の 論文 體制問題 등을 들수 있다.

## 1. 編制上の 問題點

農工學會誌의 嚆矢가 되었던 農業土木會誌는 그 編制가 論說資料만에 依한 單純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論文體制의 擘은 거의 없고 一線技術者들에게 主로 必要한 先進國의 技術資料가 大部分이어서 그 愛讀人口는 많았으나, academic 한 무게는 거의 發見하기 어려웠다. 이것이 農業土木會誌, 農工學會誌로 發展되면서 會誌의 編輯內容은 學術論文에 比重을 좀더 높이는 方向으로 試圖되었던바, 그後 一線技術者들 大部分이 愛讀利用하여 왔든 技術資料등은 原稿도 窮乏하여 論文偏重의 學會誌가 되어 academic 한 比重은 높아졌으나 實質 愛讀人口는 도리어 大端히 줄어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結局 問題는 academic 한 比重도 살리고 이 會誌를 愛讀利用하는 人口가 全會員이 될수 있는 方向에서 會誌內容의 編制를 改善하려는 일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點을 目標로 삼는다면 學術論文 새로운 技術資料 및 教育資料, 國內외의 農工分野의 動向에 關한 情報등이 고루 실릴수 있게 하여,

이學會誌를 통하여 學界會員은 學界會員대로 새로운 研究文獻을 收集할 수 있고 自己 論文을 發表할 수 있는 機會가 附與되게 하고 技術者會員은 그 나 름대로 새로운 技術資料 內至 教育資料를 收集할 수 도 있고 發表할 수도 있게 하여 學界會員이나 技術者會員이나 모두 從前보다 幅넓은 科學技術의 習得을 위하여 이 學會誌의 眞實한 愛用者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先進 다른 나라의 農工學會誌의 編制에 뒤떨어지지 않는 方向의 學會誌로 研究改善하여 나 아갈 必要가 생긴다.

## 2. 內容上의 質의 向上 問題

一般的으로 어떠한 글을 莫論하고 그 內容이 充實하여 읽는 보람을 느끼는 글은 自然 讀者가 많게 마련이고 그만큼 그 貢獻도가 높아 짐도 두말할 나 위가 없다. 글 自體의 內容이 어렵게 表現되었다고 해서 質이 높은 것은 아니고, 글 自體가 쉽게 表現 됐다고 해서 質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말 하는 글의 質이란 學術論文의 경우 論題에 對하여 얼마만큼 焦點을 맞추어 事理 바르게 깊숙하게 빈틈없이 展開되었느냐에 찾아 보아야 되겠고, 技術資料 및 教育資料 등 글에서는 全體의인 讀者의 水準에 알맞는 方向에서 讀者로 하여금 쉽게 理解하고 利用할 수 있도록 條理있게 展開되어 있느냐에 찾아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出版된 우리 學會誌의 內容을 살펴볼때 글의 質에 있어 많은 向上發展이 있던 點도 事實이지만 아직도 質이 좋은 內容의 學會誌로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 會員 다 같이 많은 反省과 努力이 要求된다고 본다. 勿論 質이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손쉬운 것은 아니지만 自己의 글이 自己의 얼굴이라 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精誠을 기우려 글을 다듬어 써 나간다면 質이 좋은 글을 期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 會誌는 外國學會誌 또는 國內 各學會誌와도 交流되는 것이므로 우리 韓國農工學會의 矜持가 損傷되지 않게 하는 方向에서 우리 다 같이 올바르게 條理있는 글을 위하여 努力할 일이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 學會誌에 실리는 原稿는 누구것을 莫論하고 從來方式을 止揚하고 事實 그대로 客觀的이고 嚴格한 審査에 通過된 것 만을 採擇하여야 한다는 建設的 陳言이 會員 여기저기에서 일고 있음은 學會誌의 質을 높이는 方向에서 무척 多幸하고 鼓舞的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 3. 出刊回數의 增大問題와 豫算增額問題

會誌內容의 質이 어느 程度 向上되었다고 하더라도 出刊回數가 적다 보면 會員들이 自己의 글을 실리고 남의 글을 읽고 利用하는 機會가 적어지는 만큼 會誌가 會員들에게 주는 寄與도가 작아질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出刊回數를 늘릴 수 있는 與件만 마련되어 있지만 出刊回數의 增大는 會員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掲載될 原稿의 量이 뒤따라야 하고 이에 따라 豫算의 增額이 隨伴되어야 함이 一般的이다.

우리 會誌의 경우 年2회의 出刊에서 年4회의 出刊을 한 것도 오늘날 까지 9年間이나 繼續되어 왔고, 앞으로 學會誌의 編輯方向이, 論文外에 技術資料, 論說, 國內外情報, 講座 등으로 相當한 紙面을 찾아 할것으로 미루어, 年4회의 出刊으로는 앞으로 나올 原稿의 量을 充足시키기 어려운 程度로 紙面의 不足이 닥쳐 올것이 豫想되기도 한다. 그러나 7年度는 豫算上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서 出刊回數를 增大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來年度부터는 豫算增額과 아울러 出刊回數를 年6回程度로 增大시키려는 試圖도 생각할 必要가 있다. 先進外國의 경우 學會誌는 年12회로 月刊으로 나오고 以外에 論文集이 月刊 또는 2個月間隔의 出刊이 있는 것으로, 우리 會誌를 年6회의 增回出刊을 試圖한다고 하더라도 先進國의 것과는 比較가 되지 못할 程度로 너무나 작은 出刊回數가 된다.

近來에는 原稿라면 主로 大學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나, 앞으로 會員의 絶對多數를 찾아하는 現業 技術者들로부터 많은 原稿를 내 놓을 수 있게 編輯計劃을 세워 實行하여 나간다면 原稿의 量으로도 年6회以上的의 出刊도 可能한 것이다.

## 4. 編輯上의 論文體制問題

一般的으로 論文의 體制는 緒言, 研究史, 材料 및 方法, 結果 및 考察, 摘要, 英文 summary, 引用文獻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先進外國의 경우 學會誌는 勿論 論文集에 까지도 흔히 緒言과 研究史는 緒言에서 함께 簡潔하게 整理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學會誌의 紙面節約과 豫算節約이란 兩側面에서도 歡迎 받을 만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 學會誌에서도 緒言과 研究史는 可能한 限 緒言에서 같이 簡潔하게 묶는 方法에서 論文體制의 1部 改革도 果敢히 實踐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